| 한 해를 보내며 |

가난이 우리를 키웠습니다



맹난자
수필가

고지식했던 아버지의 딸이었던 난
호사 같은 것을 누릴 수가 없었다
수학여행 대신 갔던 덕수궁 산책서
맑은 가난 속 자유가 왠지 뿌듯해

수필가가 돼 첫 수필집 발간 당시
법정 스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에는
"가난이 우리를 이만큼 키웠다"

배고픔 모르면 남의 배고픔 모르듯
남의 아픔 같이 느끼는 것이 자비
헛것 아닌 성스러운 샘물을 키우자

아침 뉴스에서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지목되는 최순실 씨의 구형 25년과 벌금 1185억 원이 발표되었다. 억장이 무너지는 듯 그녀의 '억' 소리에 나는 '일조진(一朝塵)'이 떠올랐다. 욕심껏 모은 돈이 기껏 하루아침의 티끌이라니. 자고로 분(分)이 아닌 복과 까닭 없는 돈은 횡재가 아니라 재앙이라고 했던가. 수갑을 찬, 한때 실세였던 사람들을 보니 〈채근담〉의 일구가 떠올랐다.

"도덕을 지키는 이는 일시 적막이나, 권세에 아첨하는 자는 처량 만고라." 선인들의 말씀은 틀린 데가 없었다. 그래서 달인은 '물외지물(物外之物)'을 보고 '신후지신(身後之身)'을 생각 하나니 살아 있는 몸보다도 죽은 뒤의 이름을 걱정해야한다고 하셨다. 한때의 적막을 받을지언정 만고(萬古)의 처량을 취하지 말라는 뜻이다.

나는 변통없고 고지식한 아버지의 딸이라서 호사 같은 것에는 일찍이 물들지 않았다. 첫 번 째는 기차에서 의문사한 야당 출신의 대통령 후보와 가깝다는 밀고로 옷을 벗어야 했고, 두 번째는 공금을 강요한 상사의 구속으로 면직되었다. 저축도 없이 실직당한 가장에게는 가솔이 딸려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써준 편지를 들고 시외 어느 파출소로 찾아가 그걸 건넸고, 답장을 받아왔다. 내 등록금이 들어 있었다. 그 후론 아버지께 나는 어떤 요구의 말씀도 드리지 않았다. 친구들이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을 때, 남은 아이들은 모여서 덕수궁 산책을 하게 했다. 이른 아침, 고궁의 뒤뜰에서 만난 고요한 마음의 평정, 맑은 가난 속에 포함된 자유가 어린 마음을 뭔가 모르게 뿌듯하게 했다.

1969년부터 '신행불교'의 편집일을 맡아 10년간 봉직하는 동안 언론매체에서 청탁이 왔었고 발표된 글에는 '수필가'라는 호칭이 뒤따랐다. 이름의 도(盜)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나는 수필가가 되었고 1996년 첫 수필집 〈빈 배에 가득한 달빛〉을 출간 하였을 때 법정 스님께서 보내주신 엽서에는 낯익은 만년필의 굵은 글씨로 이렇게 씌어 있었다.

"가난이 우리를 이만큼 키웠습니다."

스님은 '내 가난'을 편드느라고 '우리를'이라고 덧붙이는 배려를 잊지 않으셨다. 내가 스님을 처음 만난 것은 1969년 봄, 조계사 근처 어느 지하 다방이었는데 그때 합석한 홍정식 선생님은 스님께 내 취직을 부탁했고 덕분에 '불교신문'의 전신인 '대한불교신문'에 잠시 취직해 다닌 적이 있다.

미당 선생은 자신을 키운 것은 8할이 바람이라고 했으나 돌이켜보면 나를 키운 것은 법정 스님 말씀대로 가난이 맞는 것 같다. 분(分) 외의 것을 바라면 죄를 짓게 되거니와 또한 남을 원망하게 된다. 조금 덜 갖고 덜 쓰는 편이 내겐 훨씬 쉬웠다. 나는 한 끼 밥이 어려웠던 작가들이나 고흐를 생각할 때가 많다.

따뜻한 불빛 아래 식구들과 식탁에 둘러앉으면 평범한 일상사가 왜 이렇게도 어려웠을까, 그리고 한편 이 작은 평화에 무한 감사를 드리게 된다. 전도가 양양하던 젊은 가장의 실직은 가족을 불우한 그늘로 이끌었다. 사실상 가난의 대물림에서 용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불우함을 넘어서려면 불우함을 싫어하지 않아야 하고 가난을 넘어서려면 가난을 싫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주(周)나라 문왕은 유리옥에서 저 유명한 〈주역〉의 괘사를 썼고, 다산은 유배지에서 〈목민심서〉를 썼다. 사마천도 불우함 속에서 〈사기〉를 썼다. 나는 험난한 때를 어떻게 보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근심과 곤란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부처님의 말씀에 '근심'과 '곤란'에 '가난' 하나를 더 보탠다. 배고픔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남의 배고픔을 알지 못한다. 남의 아픔을 같이 느끼는 것이 자비가 아닌가.

하루아침의 티끌 같은 '헛것'에 매달리지 말고, 맑은 가난 속에서 성스러운 샘물을 키워나가자. "가난이 우리를 이 만큼 키웠습니다." 내 가슴속 깊은 샘물에 떠 있는 달이다.

발언대
종교 자유 관련 개헌 제안

폭력적 전도, 방지 대책 필요하다



선진규
봉화산정토원장

우리나라 2015년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국민의 과반수가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한다.

종교의 종류도 다양해 다종교사회라 칭하고 있다. 종교의 헌법적 보장은 '종교의 자유'라는 항목에 법적보장을 받고 있으나 그간 비대하여진 종교의 자유는 도를 넘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종교 자유의 본래 정신이 상실된 채 사회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범법 사건이 종교인에 의해서 직·간접으로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더욱 놀라운 것은 종교간 대립이 상상을 초월한 위험 수위를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웃종교 시설물에 들어가 땅밟기, 성물(聖物)훼손, 방화 심지어는 욕설, 위협적 폭언 등이 자행되고 있다.

또한 거리에 확성기를 달아놓고 일상생활에 전념하는 시민에게 "믿지 아니하면 불신지옥에 떨이진다"고 외치며, 학교나 상징적인 장소에 안치되어있는 단군상을 우상이라며 목을 날리는 폭행을 서슴치 않는다.

어느 학교 교사는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우상을 안치한곳에 마귀들이 득실하고 있는 곳이니 가지말라"며 이웃종교 성직자들을 '사탄'이라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고 한다. 군 지휘관이 사병들에게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믿지 아니하면 군대생활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항설들은 새삼스럽지 않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어 자기종교 확장의 방편으로 삼는 폭력적 전도행위는 종교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공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던 서울시장은 청와대에 입성해 종교 집회를 수시로 열어 편파적 종교행위를 했으며, 맹신적 정치인들 중에는 정치모임에서 제일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는 예는 다반사로 볼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가 이제 방종과 폭력, 온갖 비리로 멍들고 있다. 사실상 자유라는 언어에 포장돼 본래의 뜻이 사문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다종교 사회의 정신문화 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정신문화의 대립적이며 투쟁적인 혼란이 사회 전반으로 전이되고 있는 종교 형태를 헌법에서 바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헌법 제20조 조항을 다음과 같이 보충하는 초안을 제시한다.

모든 국민은 다종교사회 서로 방해 없는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헌법 제20조 1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구별되고 일체 공직에 종교는 중립된다.(헌법 제20조 2항)

社說

탈북민에 안 닿는 '중생무변서원도'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불자가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10년 전 대비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무종교인의 절반에도, 개신교계의 4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이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입국 후 가장 먼저 거주하는 국정원 조사시설(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포교하는 스님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되레 불자가 늘어난 것은 일선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포교사들의 노력 덕분이다.

중생무변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 사바세계에서 헤매는 모든 중생을 구제해 생사해탈의 열반에 이르게 하겠다는 사홍서원의 제1서원. 이는 대승불교의 근본 원이자 법회를 비롯한 한국불교 의식에서 반드시 외는 서원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서원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전혀 닿지 못하고 있다. 불교를 이끌어갈 승가가 앞장서 손길을 뻗어야 함에도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은 점은 반성할 일이다.

극도로 억압된 북한사회를 떠나 자유대한민국에 발을 들인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심리적 안정과 정착 지원이다. 누구보다도 종교인이 먼저 나설 일이고, 또 잘할 수 있는 일이다. 개신교 봉사단이 봉사 제한인원을 가득 채워 북적이며 사람 냄새를 풍길 때 불교는 봉사자마저 드물어 민망하다는 포교사의 하소연을 흘려들어선 안 된다. 언제까지 철학적인 물음을 갖고 찾아오는 이에게만 포교할 것인가.

법당에 붙은 두 발을 떼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한 이들을 찾아가자.

목마른 이에게 감로수를, 상처받은 이에게 감로법문을 전해 불국토 건설에 일조하자.

조계종 사노위 3기 출범에 부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이하 사노위)가 3기를 출범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사노위 3기 실천위원에는 대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스님들을 비롯해 권승복 前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 박문진 前민주노총 부위원장 · 이나라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집행위원장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등 노동 · 인권 사회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사노위 3기 출범과 함께 국가 ·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 범위를 넓힌다는 점도 기대를 모은다.

특히 제주 4.3사건 7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깊다. 이념갈등이 잔존하기는 하지만, 제주 4.3사건의 근본은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피해'이다. 이는 불교계 최고 법난(法難)으로 기록되는 10.27법난과 그 궤가 같다. 사노위는 서울서 처음으로 열리는 광화문 4.3사건 추모행사에 참가해 위령재를 봉행한다는 계획이다.

베트남 전쟁 중 한국 군인에게 학살된 민간인을 추모하는 것도 주목할 만 하다. 한국군에 의해 이뤄진 베트남 민간인 학살은 '불편한 진실'이었다. 그들에게 참회 · 추모하는 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새로 출범한 조계종 사노위가 전개할 사업들은 하나 같이 한국사회에 꼭 필요한 것들이다. 이와 함께 요청하고 싶은 것은 중앙종무기관, 사찰 종무원 등 불교계 내부 노동에 대한 실태를 살펴줬으면 하는 점이다. 불교계 외부 노동 인권 상황을 위해 노력하는 사노위지만, 불교계 내부 노동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 최소한의 상황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를 살피는 것도 사노위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불교계 안팎의 인권을 살피는 역할을 조계종 사노위가 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